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동문, 피동문 이해와 사동 및 피동 접미사 표현 능력

박은정[†] · 박찬희^{*} · 박 현^{**}

([†]대구대학교 · ^{*}한국국제대학교 · ^{**}상지영서대학교)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Causative and Passive Sentences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Eun-Jong PARK[†] · Chan-Hee PARK^{*} · Hyun PARK^{**}

([†]Daegu University · ^{*}Korea International University · ^{**}Sangji Youngseo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by comparing the ability of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causative and passive sentences and grammatical morphemes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Fiftee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fifteen normal children aged 7-9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howed significantly a lower ability to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causative and passive sentences compared to normal children. Second,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howed the difference about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 of causative and passive compared to normal children.

Third,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abilities of causative and passive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of age.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Causative sentence, Passive sentence, Morpheme of causative, Morpheme of passiv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민족,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르러 결혼 이주 여성이 급증하면서 2008년에는 국제결혼 비중이 전체 결혼의 11.2%에 이르렀으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Statistics Korea, 2013). 그러나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

생 수는 82,536명(1.4%)으로 전년대비 0.3%p 늘었다. 초등학생은 2.2%(전년대비 0.4%p ↑)로 처음 2%대를 넘어섰고, 중학생은 0.9%로 전년대비 0.2%, 고등학생은 0.5%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또한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은 12만 명을 넘어 향후 초중등 교육에 진입하는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Ministry of Interior, 2015).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 Corresponding author : 010-4930-3476, cominglove@hanmail.net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가정에서 한국어에 서툰 주양육자의 언어 자극이 부족한 가운데 자라나며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학령 전, 학령기로 성장하면서도 언어 발달에 지체를 나타내게 된다(Bae-So-Young, 2009).

이러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우리나라 일반 아동과 비교해 언어의 음운, 어휘, 형태 및 구문, 화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 지체를 보이고 있어, 이들 아동의 언어 발달 및 양상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형태 및 구문적 측면은 아동의 세련된 언어 표현과 학령기의 학습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국어의 형태·구문적 측면은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새, 그리고 문장 종결, 시제, 사동, 피동, 부정 등의 문법 요소를 포함한다(Song Chang-Sun, 2010). 즉, 언어의 문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적인 부분은 아동의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Bae-So-Young, 2012) 아동의 언어 발달을 살펴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를 형태 및 구문적 측면에서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조사, 어미, 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문법 형태소의 사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능력은 일반 아동과 비교해 지체되어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빈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Le Geum-Joo, 2012).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산출빈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문법형태소의 오류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령기가 되어도 문법 형태소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Na-Young, 2009).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제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시제 표지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능력이 지체되어 있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달 패턴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Kim Sung-Yi, 2012). 조사, 연결어미, 시제 등 문법형태소의 문법성 판단 및 오류 수정 능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지능과 언어 그리고 학습에 있어 두 집단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문법성 판단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Kim Eun-Jung, 2011).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형태 및 구문적 측면의 발달 지체를 보고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문법 형태소는 거의 조사, 어미, 시제 중심이었다. 다만, Lee Geum-Joo(2012)가 4, 5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어미와 더불어 사동과 피동 문법형태소를 살펴보았으나, 이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와 자발화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기에 사동 및 피동 접사의 발달이나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의 측면을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사동문과 피동문은 언어 발달에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확립된다고 보고 있기에 아동의 연령이 4-5세일 경우 다양한 발달의 양상을 보기 힘든 점이 있다.

조사, 어미 등의 문법형태소와 더불어 아동의 언어에서 사동문과 피동문의 양상을 살펴보아야 하는 까닭은 사동문과 피동문이 문장 내에서 행위자와 대상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관계를 명료화시키는 구문구조의 측면을 볼 수 있는 문법적 기능을 하며, 사동사와 피동사의 구문론적인 발달은 상대방과 언어적인 관계를 확립시켜 주고 자신과 타인과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Ha Eun-Jin, 1999). 또 자기중심에서 탈(脫) 자기중심으로 발달하는 사고발달과정의 한 측면을 아동의 언어에서 사동과 피동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보고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 봤어.”라는 능동이 “차가 보여.”나 “차를 보여 줘.”라는 피동과 사동으로 언제 바뀌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Lee Yun-Sub, 1979).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동문과 피동문 연구를 살펴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피동문은 행위자-행위-대상(agent+action+object)이라는 문장의 지배적 배열 처리 전략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영어를 말하는 아동들에게 피동문은 이해하고 표현하기 어려우며 늦게 발달한다(Owens, 2001).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어에서 사동

및 피동의 표현은 2세경에 처음 출현하고 있다. Jun Min-Ji(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피동형의 사용은 영어나 프랑스어 및 독일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5세가 지나야 획득하는 것에 비해 나타나는 시기가 매우 빠르는데, 그 이유를 피동접미사의 단순 첨가에 의한 피동문 형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동생이 꼬집혀요’의 경우 ‘꼬집어요’에 피동접미사 ‘-히-’를 첨가하여 피동문이 형성되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정확한 ‘be 동사’의 사용과 과거분사의 사용이 전제된 후에도 ‘by’의 첨가,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 이동 등을 이해하여야 하는 등 문법 복잡성 때문에 피동문이 늦게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동문과 피동문의 출현 시기는 거의 2세경이며 대체로 4세에는 30~40%의 정확률을 보이다가 5~6세에 활발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7~9세가 되면 확립되는 경향을 보였다(Lee In-Sub, 1977). 또한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사동 및 피동 접미사도 이해와 표현에 따라 빨리 습득하는 접미사가 있고 늦게 습득하는 접미사가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접미사 첨가에 의한 사동문과 피동문을 형태적 사동문과 피동문이라고 하는데, 동사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만든 통사적 사동문과 ‘-어(아)지다’를 붙여 만든 통사적 피동문과 비교해 의미나 형식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Song Chang-Sun,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사동문과 피동문의 활발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7세에서 거의 안정이 되는 9세까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동문, 피동문의 이해 능력과 사동 및 피동 접미사의 표현 능력을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동 및 피동 접미사 습득이 사동문, 피동문의 이해와 표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일반 아동과 비교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사동, 피동문 이해와 사동, 피동 접미사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와 표현 능력에 서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접미사별 습득에 서로 차이가 있는가?

1)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사동문의 이해능력에서 접미사별 차이가 있는가?

2)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사동문의 표현능력에서 접미사별 차이가 있는가?

3)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 간 피동문의 이해능력에서 접미사별 차이가 있는가?

4)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 간 피동문의 표현능력에서 접미사별 차이가 있는가?

셋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은 연령에 따른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와 표현 능력에 서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아동으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가정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15명의 아동이다. 비교집단 아동은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모국어가 한국어인 아동 15명이다. 대상 아동의 연령을 사동문과 피동문이 활발히 발달한 후 안정을 보이는 시기인 7-9세의 초등 저학년 아동으로 선정하여 각 연령별 5명씩 다문화 가정 아동 15명과 일반 아동 15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1>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Normal Children			
Name	Gender	Age (Years; Months)	Mother's Country	Name	Gender	Age (Years; Months)	Mother's Country
N-1	F	(7;8)	Vietnam	N-16	M	(7;0)	Korea
N-2	F	(7;7)	Vietnam	N-17	M	(7;4)	Korea
N-3	M	(7;2)	Vietnam	N-18	M	(7;2)	Korea
N-4	M	(7;0)	Vietnam	N-19	M	(7;3)	Korea
N-5	M	(7;3)	China	N-20	F	(7;4)	Korea
N-6	F	(8;1)	China	N-21	F	(8;7)	Korea
N-7	M	(8;1)	Vietnam	N-22	M	(8;0)	Korea
N-8	F	(8;5)	Vietnam	N-23	F	(8;6)	Korea
N-9	M	(8;9)	Vietnam	N-24	M	(8;2)	Korea
N-10	F	(8;7)	Vietnam	N-25	F	(8;0)	Korea
N-11	F	(9;6)	Russia	N-26	F	(9;9)	Korea
N-12	F	(9;5)	China	N-27	M	(9;4)	Korea
N-13	F	(9;5)	China	N-28	M	(9;5)	Korea
N-14	F	(9;6)	China	N-29	M	(9;9)	Korea
N-15	M	(9;1)	Vietnam	N-30	M	(9;1)	Korea

2. 연구 도구

가.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사동문의 이해 및 표현 문항은 각각 21개이며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문항은 각각 17개로 총 76개의 문항을 검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사동문은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에 의해 파생된 사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형태적 사동문으로 구성하였는데, 이해와 표현 문항에 같은 사동사를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피동문 역시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해 파생된 피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형태적 피동문으로 구성하였고 이해 및 표현에 같은 피동사를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가.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문항 및 그림자극의 적절성,

검사 실시 방법 등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 5세와 7세의 일반 아동 2명과 성인 2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 피동사 ‘물리다’와 ‘물어뜯기다’의 의미의 모호성으로 피동사 ‘물어뜯기다’를 제외하여 피동접미사 ‘-기-’에 의한 피동사를 ‘안기다, 빼기다, 쫓기다’로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그림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인 사동사 ‘올리다, 맞히다’와 피동사 ‘끌리다, 쫓기다, 차이다’를 2, 3차례에 걸쳐 수정하고 수정된 문항을 재검사하여 검사 도구를 완성하였다

나. 본 연구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남 지역에 위치한 언어치료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검사 장소는 언어치료실과 아동센터 내의 교사실이나 조용한 방에서 실시하였다. 검사는 교사 또는 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아동이 동사 목록에서 제시한 단

어를 모두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 검사자와 아동이 1대 1로 마주 앉아 실시하였다. 이해검사를 먼저 할 경우 후의 표현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Ha Eun-Jin, 1999 재인용)에 따라 사동 및 피동 표현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사동 및 피동 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들어가기 전, 아동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테니 잘 보고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한 뒤, 연습문항 그림카드 2장(표현 1장, 이해 1장)을 제시하고 아동이 검사 유형을 익히도록 하였다.

4. 자료 처리

가. 자료 분석 및 평가

검사 기록지의 분석은 검사 당일 혹은 1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현 검사 채점 방법은 사동 및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의 문법형태소가 첨가된 문장으로 산출할 때 1점으로 계산하였다. 문법형태소가 산출되지 않고 ‘-게 하다’, ‘-어지다’ 등의 통사적 방법으로 산출되는 것은 정확한 반응은 아니지만 적절한 반응으로 계산하여 1점으로 기록하였다. 오답과 무반응은 0점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자극 단계 1, 2의 지시 중 어느 단계에서 정반응을 보여도 동일하게 1점으로 계산하였다. 사동문 및 피동문의 이해검사는 정답 옆에 아동의 반응을 번호로 표기하였다. 정답인 경우 1점으로, 오답과 무반응은 0점으로 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점수는 사동문 이해, 사동문 표현, 피동문 이해, 피동문 표현 영역 별로 총점을 계산하였다. 사동문 이해 및 표현의 총점은 각각 0점에서 21점, 피동문 이해 및 표현의 총점은 각각 0점에서 17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문법형태소 즉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의 정확한 습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

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의 정확한 반응점수를 이해 및 표현별로 계산하였다. 이때는 통사적 표현을 제외하고 정확한 문법형태소가 산출된 것만을 점수로 계산하였다.

나.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for Windows(ver.18)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이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와 표현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독립표본 t 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이 문법형태소별 이해 및 표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독립표본 t 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과제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5. 신뢰도

자료 전사의 정확성과 사동문과 피동문을 정확하게 사용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제 1 평가자는 연구자이며 제 2 평가자는 언어치료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1명으로 하였다. 전체 자료의 25%를 무선 추출하여 평가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평가자간 전사신뢰도와 분석신뢰도는 각각 98%였다.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동문과 피동문 능력비교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독립 t 검정 결과 두 집단 간 사동문의 이해($t=3.95$)와 표현($t=3.98$) 점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피동문의 이해($t=4.79$)와 표현($t=3.68$) 점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2.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동문과 피동문의 문법형태소별 비교

1)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동문의 법형태소별 이해 능력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동문의 문법형태소별 이해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독립 t 검정 결과 문법형태소 ‘-히-, -리-, -기-, -우-’에서 두 집단 간 사동문의 이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문법 형태소 ‘-이-’의 사동문의 이해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Table 2> t-test on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Ability of Causative and Passive Sentences between Groups

		N	M	SD	t	p
Comprehension of Causative	Multi-cultural	15	11.47	4.05	3.95	0.000***
	Normal	15	18.07	3.33		
Expression of Causative	Multi-cultural	15	10.73	3.81	3.98	0.000***
	Normal	15	16.33	3.90		
Comprehension of Passive	Multi-cultural	15	9.20	4.31	4.79	0.000***
	Normal	15	15.00	1.85		
Expression of Passive	Multi-cultural	15	9.93	4.20	3.68	0.001**
	Normal	15	14.60	2.56		

** $p < .01$, *** $p < .001$

<Table 3> T-test on Comprehension Ability by Grammatical Morpheme of Causative Sentence between Groups

		N	M	SD	t	p
I	Multi-cultural	15	2.67	0.98	1.18	0.249
	Normal	15	3.07	0.88		
Gi	Multi-cultural	15	2.20	1.47	2.43	0.022*
	Normal	15	3.33	1.05		
Ri	Multi-cultural	15	2.00	1.13	4.41	0.000***
	Normal	15	3.60	0.83		
Gi	Multi-cultural	15	2.67	1.45	4.44	0.000***
	Normal	15	4.53	0.74		
U	Multi-cultural	15	1.93	1.03	4.48	0.000***
	Normal	15	3.40	0.74		

2)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동문의 문법형태소별 표현 능력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동문의 문법형태소별 표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Table 4>에 나타나 있다. 독립 t 검정 결과 문법 형태소 ‘-리-, -기-, -우-’ 사동문에서 두 집단 간 표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3)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피동문의 문법형태소별 이해 능력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피동문의 문법형태소별 이해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Table 5>에 나타나 있다. 독립 t 검정 결과 문법 형태소 ‘-이-, -히-, -리-, -기-’ 피동문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이해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Table 4> T-test on Expression Ability by Grammatical Morpheme of Sentence between Groups

		<i>N</i>	<i>M</i>	<i>SD</i>	<i>t</i>	<i>p</i>	
Expression of Causative	Yi	Multi-cultural	15	2.20	1.08	1.75	0.093
		Normal	15	2.80	0.77		
	Hi	Multi-cultural	15	1.73	1.22	2.05	0.050
		Normal	15	2.73	1.44		
	Ri	Multi-cultural	15	2.00	1.00	4.56	0.000***
		Normal	15	3.47	0.74		
	Ri	Multi-cultural	15	2.67	1.45	2.24	0.033*
		Normal	15	3.80	1.32		
	U	Multi-cultural	15	2.13	1.06	3.80	0.001**
		Normal	15	3.40	0.74		

<Table 5> T-test on Comprehension ability by Grammatical Morpheme of Passive Sentence between Groups

		<i>N</i>	<i>M</i>	<i>SD</i>	<i>t</i>	<i>p</i>	
Comprehension of Passive	Yi	Multi-cultural	15	2.00	1.13	-4.36	0.000***
		Normal	15	3.47	0.64		
	Hi	Multi-cultural	15	2.53	1.46	-3.23	0.003**
		Normal	15	4.13	1.25		
	Ri	Multi-cultural	15	2.73	1.62	-4.15	0.001**
		Normal	15	4.60	0.63		
	Gi	Multi-cultural	15	1.93	1.03	-3.02	0.007**
		Normal	15	2.80	0.41		

4)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피동문의 문법형태소별 표현 능력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피동문의 문법형태소별 표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독립 t 검정 결과 문법 형태소 ‘-이-, -히-, -리-’ 피동문에서 두 집단 간 표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Table 6> T-test on Expression Ability by Grammatical Morpheme of Passive Sentence between Group

			<i>N</i>	<i>M</i>	<i>SD</i>	<i>t</i>	<i>p</i>
Expression of Passive	Yi	Multi-cultural	15	2.20	1.26	-3.07	0.005**
		Normal	15	3.40	0.83		
	Hi	Multi-cultural	15	2.67	1.23	-3.48	0.002**
		Normal	15	4.27	1.28		
	Ri	Multi-cultural	15	3.00	1.56	-3.78	0.001**
		Normal	15	4.60	0.51		
	Gi	Multi-cultural	15	2.07	1.10	-0.78	0.439
		Normal	15	2.33	0.72		

<Table 7.> 2-Way Analysis of Variance on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of Causative and Passive Sentences according to Age between Group

		Source	Sum Sq	<i>Df</i>	Mean Sq	<i>F</i>	<i>p</i>
Comprehension of Causative	Age		16.067	2	8.033	0.586	0.564
	Group		326.700	1	326.700	23.847	0.000
	Age × Group		39.800	2	19.900	1.453	0.254
	Error		328.800	24	13.700		
Expression of Causative	Age		55.467	2	27.733	1.981	0.160
	Group		235.200	1	235.200	16.800	0.000
	Age × Group		24.800	2	12.400	0.886	0.425
	Error		336.000	24	14.000		
Comprehension of Passive	Age		102.600	2	51.300	6.706	0.005
	Group		252.300	1	252.300	32.980	0.000
	Age × Group		22.200	2	11.100	1.451	0.254
	Error		183.600	24	7.650		
Expression of Passive	Age		51.267	2	25.633	2.188	0.134
	Group		163.333	1	163.333	13.940	0.001
	Age × Group		6.067	2	3.033	0.259	0.774
	Error		281.200	24	11.717		

3.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사동문과 피동문 능력 비교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연령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두 집단의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8>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8>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of Causative and Passive Sentences according to Age between Groups

			<i>N</i>	<i>M</i>	<i>SD</i>
Comprehension of Causative	7-year old	Multi-cultural	5	9.60	3.36
		Normal	5	18.80	2.28
	8-year old	Multi-cultural	5	10.80	4.66
		Normal	5	17.80	4.97
	9-year old	Multi-cultural	5	14.00	3.39
		Normal	5	17.60	2.79
Expression of Causative	7-year old	Multi-cultural	5	10.40	5.27
		Normal	5	14.00	4.90
	8-year old	Multi-cultural	5	10.40	3.91
		Normal	5	15.60	2.79
	9-year old	Multi-cultural	5	11.40	2.61
		Normal	5	19.40	1.52
Comprehension of Passive	7-year old	Multi-cultural	5	6.00	3.08
		Normal	5	14.00	1.87
	8-year old	Multi-cultural	5	9.00	4.90
		Normal	5	14.60	1.67
	9-year old	Multi-cultural	5	12.60	2.07
		Normal	5	16.40	1.34
Expression of Passive	7-year old	Multi-cultural	5	7.80	4.21
		Normal	5	13.60	3.97
	8-year old	Multi-cultural	5	10.40	5.77
		Normal	5	14.00	1.22
	9-year old	Multi-cultural	5	11.60	1.14
		Normal	5	16.20	0.8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이 사동문, 피동문의 이해와 사동 및 피동 접미사 표현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사동문, 피동문의 이해와 표현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문법형태소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Kim Eun-Jung, 2011; Lee Geum-Joo, 2012). 또한 본 연

구의 일반 아동은 전반적으로 정반응률이 거의 80%이상으로 사동문과 피동문이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선행연구(Cho Young-Hwa, 1991; Ha Eun-Jin, 1999)에서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와 표현 능력이 7세에서 9세 사이에 안정, 확립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 아동은 피동 이해에서 가장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동 이해와 피동 표현이 같고, 사동 표현에서 가장 낮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동문 이해가 사동문 표현을 앞서고 피동문 이해가 피동문 표현을 앞서, 이해가 표현에 앞서는 양상을 나타내었

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Cho Young-Hwa(1991)는 성취율이 90%가 되는 시점을 사동 이해가 6세, 피동 이해가 7세,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9세였다고 보고하여 이해가 선행되고 후에 표현이 확립된다고 하였다. 또한 Kim Young-Jin(2002)의 연구에서도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생활연령,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세 집단 모두에서 이해 능력이 표현 능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일반 아동의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가 표현을 선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발달 순서에서 본 연구 결과 피동 이해가 가장 먼저 발달한다고 나온 것은 Cho Young-Hwa(1991)와 Kim Young-J

in(2002)에서 사동 이해 능력이 가장 먼저 발달한다고 나온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 두 집단 모두에서 피동 표현 능력이 사동 표현 능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Lee Yun-Sub등(1979)이 3세에서 6세 아동 22명의 자발화를 통해 구문 발달을 연구하면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사동 구문이 피동 구문보다 어렵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Lee In-Sub(1977)에서 사동문의 표현 능력이 피동문의 표현 능력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각 연구자별로 대상 아동의 연령 및 대상 아동의 수, 연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은 피동 표현, 사동 이해, 피동 이해, 사동 표현의 순서로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사동문에서는 이해가 표현을 앞섰으나 피동문에서는 표현이 이해를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Ha Eun-Jin(1999)의 연구에서 사동 표현이 사동 이해를 앞서는 결과를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기보다 덩이(chunk)로 이해하여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이 피동문을 어떤 상황에서 덩이(chunk)로 표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문법형태소별 습득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동문 이해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은 문법형태소 ‘-히-, -리-, -기-, -우-’ 사동문의 이해 점수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이-’ 사동문의 이해 점수는 일반 아동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가장 높게 나타나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이-’ 사동문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이-, -히-, -기-, -리-, -우-’의 순서로 이해하고 일반 아동은 ‘-기-, -리-, -우-, -히-, -이-’의 순서로 이해하여 일반 아동에게 다소 어려운 ‘-이-’ 사동문을 가장 쉽게 이해한다고 나타나 습득에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김영진(2002)의 연구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생활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정반응률을 보인 ‘-이-’에서 가장 높은 정반응률을 나타내었던 결과와 비슷하다. 사동문 표현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은 문법형태소 ‘-리-, -기-, -우-’ 사동문의 표현 점수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형태소별로 다문화 가정 아동은 ‘-이-, -기-, -우-, -리-, -히-’의 순서로 표현이 쉽고, 일반 아동은 ‘-리-, -우-, -기-, -이-, -히-’의 순서로 쉽다고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동문의 이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 아동이 문법형태소 ‘-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앞서 언급한 Kim Young-Jin(2002)의 연구에서도 사동문 표현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이-’의 정반응률이 가장 높았고 일반 아동 두 집단은 ‘-이-’의 정반응률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일반 아동에서 ‘-이-’가 낮은 편으로 나왔고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이-’가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비슷하다. 다문화 가정 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언어 특성이 다르지만, 문법형태소 사용 능력이 지체된 집단의 아동이 일반 아동과 문법형태소 습득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표집 아동의 수가 적고

문법형태소별 문항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사동문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법 형태소 사용 양상이 일반 아동과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동문 증재 시, ‘-이-’ 사동사에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피동문 이해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문법형태소 ‘-이-, -히-, -리-, -기-’ 피동문 모두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형태소별로 다문화 가정 아동은 ‘-기-, -리-, -히-, -이-’ 순서로 피동문 이해가 쉽다고 하였고 일반 아동도 ‘-기-, -리-, -이-, -히-’ 순서로 피동문 이해가 쉽다고 나타나 두 집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기-’ 피동문을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리-’가 가장 쉽다고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Ha Eun-Jin, 1999; Kim Young-Jin, 2002)와 차이가 있으나, 일반 아동의 경우는 ‘-리-’와 ‘-기-’가 정반응률이 90%이상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반응률은 ‘-리-, -히-, -이-’는 비슷한 반면 유독 ‘-기-’의 정반응률이 높았다.

피동문 표현에서는 ‘-이-, -히-, -리-’ 피동문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다문화 가정 아동이 ‘-기-, -리-, -이-, -히-’ 순서로 쉬운 반면, 일반 아동은 ‘-리-, -이-, -히-, -기-’ 순서로 쉽다고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피동문의 이해와 표현 모두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은 문법형태소 ‘-기-’ 피동문을 가장 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동문 표현에서 일반 아동의 결과는 ‘-리-’가 쉽고 ‘-기-’가 가장 어렵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Ha Eun-Jin, 1999). Kim Young-Jin(2002)의 연구에서도 피동문의 표현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두 집단 모두 ‘-리-’를 가장 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결과는 일반 아동과 상반되게 ‘-기-’를 가장 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우선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 피동사 ‘안기다, 쫓기다, 빼앗기다’를 그 외의 피동사 ‘덮이다, 쏘이다, 묶이다, 차이다, 업히다, 잡히다, 잡아먹히다, 꼬집히다, 밟히다, 물리다, 밀리다, 끌리다, 깔리다, 찢리다’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피동사를 만드는 ‘-이-, -히-, -리-, -기-’ 형태소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이 ‘-기-’를 다른 형태소보다 음운적으로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음운적인 요인이다. 사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집 아동의 수가 적고 문법형태소별 문항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피동문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법 형태소 사용 양상이 일반 아동과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다문화 가정 아동의 피동문 언어 증재 시 ‘-기-’ 피동사를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은 연령에 따른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 아동의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7세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Ha Eun-Jin, 1999).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Kim Eun-Jung(2011)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법형태소가 학령기에 받는 언어 자극으로 인해 연령에 따라 발달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처럼, 본 연구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받는 언어적인 자극으로 인해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점차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동문과 피동문이 거의 안정되는 7~9세에도 다문화 가정 아동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와 표현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지체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능력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학령기의 언어 자극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은 사동 접미사 및 피동 접미사 습득에 있어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형태소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중재 시, 문법형태소별 난이도에 따라 접근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동문과 피동문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을 문법형태소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상 아동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지능, 언어 능력 등을 통제하지 못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 아동과 비교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 어머니의 출신국 및 언어 능력, 국내 거주기간,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통제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동사 목록 체크리스트를 통해 동사의 기본 의미를 모두 이해한다고 보고 받았으나, 능동문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은 어떠한지 알 수 없었다. 능동문은 동사의 의미 외에도 조사와 어순을 고려하여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므로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능동문, 사동문, 피동문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Bae-So-Young · Gwak Geum-Joo · Kim Geun-Young · Jung Gyung-Hee · Kim Hyo Jung(2009). Supporting th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Survey of Mothers and Developmental Supporter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8(4), 165~184.

Bae So-Young, Kim Mi-Bae, Hung Gyung-Hee (2012). Grammatical Morphemes of School Aged Korean Children without Poor Reading.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1(1), 17~37.

Cho Myung-Han(1982). Study on Language Acquisition by Korean Children: Strategy Model.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Cho Young-Hwa(1991). Causative and Passive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Master's Thesis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Chungang University.

Ha Eun-Jin(1999). Study on the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Development of Causative and Passive Sentences. Doctor's Thesis at Graduate School of Ehwa Women's University.

Jun Min-Ji(2012). Study on Development of Grammatical Morpheme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in Story Retelling Task. Master's Thesis at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Kim Eun-Jung(2011). Study on Grammaticality Judgment and Error Correction of 6-8 Aged Children: Focused on Children in Ordinary Family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Master's Thesis at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Kim Hwa-Soo(2011). Multi-cultural Society and Commun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Modern Society and Multi-cultural Family*, 1(2), 160~175.

Kim Na-Young(2009). Characteristics in Using Grammatical Morpheme by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at Graduate School of Hallym University.

Kim Sung-Yi(2012).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Tense Markings in Multi-cultural Preschool Children and Normal Pre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at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Kim Young-Jin(2002).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Causative and Passive Sentences betwee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Normal Children. Master's Thesis at Graduate School of Ehwa Women's University.

Lee Geum-Joo(2012). Study on Production of

- Grammatical Morpheme in Multi-cultural Pre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at Graduate School of Nambu University.
- Lee In-Sub(1977). Causative and Passive in Children's Speech. Journal of Seoul Women's University, 6, 25~38.
- Lee Yun-Sub · Kwon Gyung-Ahn · Kim Sung-II(1979). Syntactic Development in Korean Children(I). Seoul: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ion.
- Lim Hong-Bin(1988).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Life, 2, 86~98.
- Ministry of Education(2015). Basic Education Statistics. <http://www.moe.go.kr>.
- Ministry of Interior(2015). 2015 Foreign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 <http://www.moi.go.kr>.
- Nam Ki-Shim · Goh Young-Gun(2011). Grammar of Standard Korean. Seoul: Top Publishing.
- Oh-So-Jung · Kim Young-Tae · Kim Young-Ran(2009). Preliminary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mily Factor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pecial Education, 8(1), 137~161.
- Owens, R.(2001). Language Development (Translated by Lee Seung-Bok). Seoul: Sigma Press. (Original was published in 1988)
- Song Chang-Sun(2010). Korean Syntax. Seoul: Hankook Munhwasa.
- Statistics Korea(2013). 2013 Vital Statistic of Immigrants in Korea. <http://kostat.go.kr>.
-
- Received : 25 July, 2016
 - Revised : 12 August, 2016
 - Accepted : 18 August, 2016